

GRACE 선교소식

2026년 7월 GMI-GKC 선교사 현황: 58개국 301명 (자체파송 79%)

모든 세대가 연합하여 땅끝까지!

GMI 총재 한기홍 목사

저는 지난주 우리 성도님들께서 많이 기도해 주신 덕분에 LA 총현선교교회 창립 41주년 부흥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고, 현재 멕시코에서 교단 총회 사역을 감당하며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내년도 국제총회를 그레이스미션대학교가 주최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총회 장소를 멕시코 칸쿤으로 계획하고 있어, 오는 9월 총회를 앞두고 사전 답사를 위해 이병구 부총장님과 권혁석 장로님과 함께 현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현재 교단 국제총회 총회장과 교단 신학교인 그레이스미션대학교 이사장으로 섬기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에서는 총회 장소에 적합한 여러 후보지를 직접 둘러보며 확인하고 결

정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사역이든 사전에 철저히 준비된 만큼 더욱 큰 은혜가 있고 모임도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기에, 교단 목회자들이 은혜를 받고 심을 누릴 수 있는 최적의 장소를 미리 준비하고 있습니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오랜 역사를 이어오면서도 변질되지 않고 본질에 충실하려면 지도자들이 늘 깨어 성령으로 충만하며, 주님의 마음으로 희생하고 사랑으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 국제총회가 언제나 복음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세계 선교에 더욱 힘쓰는 교단이 되도록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성도님들께 기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주일부터 가정교회 예배안 운영 방식이 새롭게 변경됩니다. 가정교회는 단순히 말씀을 배우는 모임을 넘어, 말씀이 삶이 되고 삶이 간증이 되는 공동체입니다. 주일 강단에서 선포된 말씀이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정과 가정교회 안에서 다시 나누고 삶에 적용될 때 성도님들의 삶은 더욱 깊이 변화됩니다.

이제부터는 지난주 설교가 아니라 해당 주일에



한기홍 목사님 사역일정

- OC 차세대 목회자 초청 영적 대각성 새벽기도회 말씀인도: 8/3
- MK 컨퍼런스 말씀인도: 8/4
- 샌프란시스코 예수인 교회 부흥성회: 8/12-8/14
- OC 차세대 목회자 세미나: 8/20
- GTD 213(남)기 인도: 8/23-8/26

목사님의 사역 일정들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함과 성령충만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선포된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교회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말씀의 감동이 가장 생생할 때 함께 나누고 적용함으로써, 한 주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캄보디아 스나온혜교회는 어른 예배가 잘 드러지고 있었는데 우리가 아끼던 청년 두명이 계속해서 교회를 빠지고 어른성도들도 집 안에 갇힌 행사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사역자와 교회를 섬기는 우리는 마음을 쓸어내리게 됩니다.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으려 예배 끝나고 같이 기도하며 힘쓰고 있습니다.

그동안 성경공부를 할 때마다 부작용으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아직도 캄보디아 사람들

은 교회를 물질로 생각하고 물질적 필요로움만 바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칠 때 부딪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른 4명 정도의 어른 성도들이 이제 교회에 나오기 시작 반년이 되었습니다. 이제 성경공부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도 잠깐 일하다가 밥 먹는 시간에 틈내서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상황이라 시간을 내기가 어려운 상황이고 또 어떤 성도는 글을 읽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상황만 생각한다면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입니다. 믿음이 자라려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과정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의지하여 “믿는 자에게는 능치못함이 없느니라” 기도와 믿음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기도부탁드립니다.

청소년 예배에 새로 나온 친구들이 잘 정착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더 좋은 환경이 필요한데 교회에서 많은 것을 제공해주지 못해 아쉬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청소년들이 믿음이 잘 자라서 교회에 기동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캄보디아는 아직도 어수선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다시 한국에서 방문객들이 조금씩 들어오고는 있으나 아직도 위험 지역에는 중국조직들이 많다고 합니다. 환율, 캄보디아의 상황, 그리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시기에 더 강한 영성으로 무장하고 이기를 주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선교사가 되도록 기도부탁드립니다.

T국

이예레미아 / 권은혜 선교사

T국 선교 소식

아들 결혼 이야기

M국에서 추방을 당한 뒤 T국에 와서 극심한 사춘기를 겪었던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하고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습니다. “네 아들이 비록 어려움을 겪게 되겠지만 내가 그를 사용할 것이다”라고 꿈에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과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시 무슬림이 되겠다고 반항하며 T국 사람들을 죽이겠다고 했던 아들을 변화시키셔서 전도사가 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하고 선교사가 되기를 소망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T국에서 사역하는 M국 선교사 이야기

7명의 M국 선교사들과 4명의 선교사 자녀(MK)들이 T국에서 T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닫혔던 M국 복음의 문이 열린 후 M국 땅에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은혜를 입은 M국 사람들이 T국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아직 재정적 자립도가 낮은 M국 교회는 파송한 선교사들을 온전히 지원하는데 현실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국 교회가 선교 자립을 이룰 때까지 M국 선교사들이 사역을 중단하지 않도록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상반기 사역 후기

전도의 결과

- 기간: 2026년 2월~6월
- T국 복음화율: 0.01%
(10,000명 중 1명이 그리스도인)

	만난 사람	복음을 끝까지 들은 사람	복음을 영접한 사람
명	183	58	8
%		31.7%	4.4%
T국 사람			6명 / 3.3%



우리는 상반기에 T국에서 총 183명을 만나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중 58명(31.7%)이 복음을 끝까지 들었고, 8명(4.4%)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들 중 1명의 이란인, 1명의 오이구르인을 제외한 T국 사람들의 수는 6명(3.3%)입니다. 이들 중 한 명은 다음날 계좌번호를 주면서 돈을 요구하는 해프닝도 있었지만, 그들의 고백 위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성령세례 받기를 기도합니다. 영접한 T국 사람들 가운데는 오랫동안 오이코스 전도를 하던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사인입니다. 척박한 T국 땅에 속히 부흥이 임하도록, 저희와 M국 선교사들이 더 열심히 전도하며 평화의 사람을 만나도록, 저희와 M국 선교사들이 올해 꼭 1명씩 세례를 주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후반기 사역

7월 17일부터 23일까지 T국 GMI EM 사역자들을 대상으로 전도훈련을 인도하게 됩니다. 성령님께서 저와 강사들을 기름부어 사용하시도록, 이 훈련을 통해 EM 사역자들이 T국을 향하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안타까운 심정을 깨닫고, T국 땅에 복음의 씨를 효과적으로 뿌리기

위한 전략을 잘 습득하며 현장에 나가 실제 복음을 전할 때 보호해 주시고 평화의 사람을 만나 그들을 예수의 제자로 잘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희 부부는 7월 25일 M국으로 이동하여 2개월가량 M국에서의 새로운 사역을 위한 준비와 단기팀 사역, 그리고 TD 사역을 할 예정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지혜로운 순으로 일을 잘 감당하고, 총명한 눈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의 전략과 권능으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M국에도 다시 부흥이 일어나 M국이 선교하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10월부터는 다시 T국으로 돌아와 복음 전파와 교회 개척 사역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3곳의 가정에서 가정교회 형태로 예배를 드렸으나 센터의 필요를 절감하고 센터 교회를 세울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비록 1도시의 물가가 많이 높지만 주님께서 공급하실 것을 믿으며, 그 센터를 통해 연합하고 T국 부흥을 견인하는 센터교회를 세우고자 합니다. 꼭 기도해 주시고 오병이어를 드림으로 함께 동참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I국

기OO 선교사

B-S도시 통역 사역

4월 25일부터 5월 2일까지 진행된 B도시와 S도시 사역에서 통역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 맡은 통역 사역이었는데, 동시통역이 아니었음에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기도와 격려 덕분에 모든 일정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사역을 통해 제 자신의 부족함을 돌아보게 되었고, 앞으로의 사역 방향성도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환경적으로도 쉽지 않은 일정이었지만 안전사고 없이 모든 일정을 마칠 수 있었음에도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현지 사역자들이 기쁨과 열정을 가지고 참여하며 배우고 적용하려는 모습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현지 사역자들이 한번의 은혜로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서로를 독려하며 보고 듣고 배운 내용들을 잘 적용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10일 기도회 (5월 10일-20일)

예수님의 승천일부터 성령강림주일까지 이어지는 10일 기도회를 3년째 SOG 공동체에서 진행하였습니다. I국의 전통에서 시작된 모임이지만, 어떤 이유로든 함께 모여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참 귀한 일임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생들이 나라와 민족, 가족과 이웃,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며 감사했습니다. 그러나 특정한 기간에만 집중하여 기도하는 것을 넘어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기에 학생들이 매주 목요일 기도모임에도 꾸준히 참여하며 기도의 삶을 이어 가기를 소망합니다.

영어 교육 사역

공부방과 학교에서 진행하던 영어 교육 사역 가운데, 다른 선생님과 함께 섬기던 공부방은 현지 대학생이 이어서 맡게 되어 6월 13일부로 마무리하였습니다. M 학교에서는 6학년 학생들과 마지막 인사를 나누며 하나님의 사랑이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소망하며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 학교에서는 현지 사역자가 계속하여 영어를 가르치는데 사랑으로 섬김의 모습을 통해 학생들이 하나님의 때에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숙사 사역

기숙사 학생들과 구역 성경개관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처음으로 성경 전체의 흐름을 배우는 시간이었기에 모든 내용을 다 기억하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말씀을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시간이었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에는 현지 사역자가 신약 성경개관과 모임을 계속 이어갈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성장하며 신앙이 더욱 견고해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8월에 신학교에 입학하는 한 학생은 7월 말 기숙사를 떠나게 됩니다. 지난 1년 동안 기숙사에 배우고 경험한 삶과 신앙의 훈련을 기억하며, 어디서든 믿음의 본이 되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역자로 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올해 12월 대학 졸업을 앞둔 학생 두 명이 있는데 졸업 이후의 진로를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길을 기쁨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장학 사역

7월 5일에는 학년을 마무리하며 후원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함께 감사모임을 가졌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지난 시간을 돌아보고 감사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대학에 진학하는 마르셀은 현지 사역자가 유치원 입학부터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후원한 첫 번째 학생입니다. 현지 사역자와 마르셀이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짧은 시간이지만 그 여정에 함께할 수 있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새로운 학년을 시작한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기쁨과 열심으로 공부하며 영과 육이 건강하게 성장해가기를 소망합니다.

저의 첫 번째 후원 아동인 아즈까는 어느덧 13살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복부 수술과 허리 수술, 장 절제 수술 등 모두 12번의 수술을 받았고, 오랜 시간 대부분을 누워지냈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조금씩 회복되어 걷기도 하고 읽고 쓰는 것도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약 9개월 전부터 왼쪽 팔과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아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없게 되었고, 특히 왼쪽 다리가 더욱 약해져 현재는 걷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병원에서도 정확한 원인을 알지 못해 답답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더욱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즈까의 운동 기능이 회복되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마음이 붙들리기를 소망합니다. 가족들



이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SOG 공동체

방학으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거나 일을 하면서 공동체 예배와 모임에 참여하는 인원은 줄었지만, 예배와 모임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학생들과 사역자들이 익숙한 속에서도 예배와 말씀, 성경통독의 소중함을 잊지 않고 더욱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9월 새 학기를 맞아 말랑으로 오는 신입생들에게 기존 학생들이 신앙의 좋은 본이 되어 공동체와 예배로 자연스럽게 이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이유로 오전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운 학생들과 믿지 않는 친구들도 함께할 수 있도록 현지 사역자가 9월부터 오후 예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준비되고 필요한 것들이 채워져 더 많은 학생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사역

7월 19일과 25일에는 바뚜 교회와 SOG 공동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합니다. 한동안 자리를 떠나기 전 학생들과 성도님들께 믿음의 기초를 다시 전하고자 합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마음에 꼭 필요한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세요.

한국 방문 및 비자 관련

현재 비자가 7월 29일 만료되기에 7월 28일 한국으로 출국하게 됩니다. 앞으로의 사역에 가장 적합한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한국에서 머무는 동안 영적 회복을 위한 여러 세미나와 교육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M들을 주 사역으로 섬기는 단체들과 만나며 하나님께서 같은 비전을 품은 동역자와 팀을 예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사역 방향이 더욱 분명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공동체와 동역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지진과 더위로 인해서 사람들이 아우성입니다. 인간이 만든 첨단 기술이 인류를 지켜줄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인간은 그저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임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과학이라는 무기를 내세워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속절없이 무너질 수 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아가는 것이 인간 본래의 모습임을 고백합니다. 죽음을 정복할 것처럼 떠들어대지만 하나님 앞에 더 당당하게 죄를 짓는 꼴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처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트라브닉

개신교 교회가 전혀 없는 도시인 트라브닉에 잠시 바람을 쐬러 다녀왔습니다. 제가 사는 제니차에서 버스로 대략 한 시간 정도 걸리는 소도시로 사람들은 더 온화하고 순박합니다. 사람들의 삶이 너무나 느리게 흘러가는 그런 곳입니다. 영화관도 없고 딱히 문화를 소비할 수 있는 곳은 아닙니다. 어쩌면 역동적인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단조롭고 지루해서 숨이 막힐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르니 지옥으로 갈 수 밖에 없음을 생각하게 되면 제가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트

라브닉을 잠시 갔다 왔습니다. 아직은 뭐라고 말하지 못하겠지만 언어가 더 익숙해지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벤치에서

제가 자주 가서 쉬는 벤치가 있는데 그 날 날씨가 드신 여성 분이 그 벤치에 앉아 계시기에 옆에 앉아도 괜찮냐고 했더니 흔쾌히 그러라고 해서 대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연세가 70세 정도인 그 여성분은 이야기보따리를 풀어 놓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에게 딸이 있었는데 병으로 인해서 죽고 자신의 삶이 내전으로 인해서 너무나 비참해졌다는 내용이었습니. 세르비아 베오그라드가 고향인 그 여성분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사라예보에 있어서 지옥 같은 삶을 살았다고 말했습니다. 피해자인 보스니아계 보스니아인들 속에서 처절한 공포를 느끼며 살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은 보스니아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서 양로원에서 살고 있지만 자신의 삶은 아무 것도 남지 않다고 하며 평생 텅 빈 가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다 못알아 들었지만 대충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그 할머니의 가슴을 채워주었으면 그리고 가야 할 천국에 소망을 심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하면서 떠날 때 기도를 해드리고 떠났습니다. 주머니 받거니의 대화는 아니었지만 할머니의 하소연을 들은 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참 많이 힘드셨음을 저도 느낄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지만 언어가 부족해서 아쉽기도 했습니다. 제가 조그만 위로가 된다면 그것으로 감사할 뿐입니다.

장례식

교회 성도 중 아도(ADO)라는 사람이 있습니

다. 그 딸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2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처음으로 공동묘지에서 이들의 장례 문화를 엿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아도의 아내는 독실한 이슬람 신자여서 이슬람식으로 매장 의식을 했습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도의 딸이지만 결국 또 한 영혼이 지옥으로 간 것을 생각하면 안타까울 뿐입니다. 괜히 저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해서 주님께 미안하기도 하고 무기력함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아서 천국에 간다면 얼마나 기쁠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이곳 보스니아에서 살다 보니 그 가치를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선택받은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는 칼빈의 예정설이 수긍이 갑니다.

야스민 (Jasmin)

처음으로 보스니아인 무슬림 친구가 사주는 식사를 대접받았습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야스민이라고 하는데 제가 자주 가는 벤치에서 알게 된 사람입니다. 연락처를 주고 받고 커피 한잔을 하기로 약속을 해서 만났는데 보스니아 전통음식을 저에게 사주었습니다. 단지 에스프레소 커피를 사이에 두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을 뿐이었는데 생각지도 못한 환대에 정말 감사했습니다.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단지 관계를 쌓을 목적으로 만났는데 저의 부족한 보스니아어에 대해서 얼마나 관대한지 정말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고로 독실한 무슬림 신자입니다. 주님께서 풀어 가시겠조! 저와 야스민의 관계를 말입니다.

6월은 이렇게 보스니아 사람들 속으로 좀 더 들어가게 된 달이었습니다.

러시아

김경순 선교사

지난 7월 12일 주일예배는 노보네희교회가 17주년이 되어 감사예배를 드렸습니다. 성도들이 예쁜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크림으로 장미꽃을 만들어 장식하니 세상에도 없는 단 하나의 예쁜 생일 케이크가 되었고 성도들이 십시일반 가져온 음식들로 예배후엔 풍성한 애찬식도 했습니다. 이곳 상황에 꽃 시장 갈 기름을 못 구해 근처에

서 백합 한 대와 국화 2대를 구입하고 성도의 텃밭에서 자라는 꽃과 나머지는 주님이 미리 예비해 주신 들꽃을 꺾어다 성전 꽃 장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기름을 수출하는 나라가 어찌 이지경이 되었는지... 몇 일전엔 새벽에 드론의 출몰로 재난 경보가 울리고 센터쪽에선 사이렌까지 울렸다는데... 어느 곳에 있어도 안전하지 못 한 지금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만이 필요하고 주님과 더욱 친밀함과 인도하심만이 위로가 됩니다.

본 교회 모든분들~ 어려운 시기에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길 기도합니다.



M국 단기선교 VBS 사역 보고

Jacey ahn

이번 단기선교의 첫 사역은 팀과 함께 아침 디보션과 간단한 식사로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MOA 선교센터로 이동하여 기도와 몸찬양, 아이스브레이크를 통해 하나님께 마음을 올려드리며 첫 번째 VBS를 준비했습니다. 팀원들은 역할별로 나누어 스킷과 프로그램을 점검하고, MOA 스태프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전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시작 시간에는 몇 명의 아이들만 보여 염려도 있었지만, 비가 오는 날씨에도 총 67명의 아이들이 참석하여 첫 VBS를 함께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아이들과 MOA 스태프 모두에게 처음 경험하는 VBS였기에 더욱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둘째 날에는 호텔에서 아침 디보션을 가진 후 선교센터에서 전통 국수로 아침 식사를 하고, MOA 스태프 및 선교사님들과 함께 선포기도문을 드리며 나라와 서로, 그리고 VBS를 위해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이 선교사님께서 사랑으로 준비해 주신 식사를 통해 육체적인 힘뿐 아니라 큰 위로와 격려를 받았습니다. 이날 아이들은 ‘하나님은 우리의 안전한 피난처 이시다(God Is Our Safe Place)’라는 말씀을 배우며, 새로 온 4명을 포함해 총 71명의 아이들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버스와 ‘상한 마음’ 스킷을 통해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했습니다. 아이들이 말씀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강 선교사님의 격려처럼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아이들이 점차 마음을 열어 함께 웃고, 몸찬양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경 말씀을 따라 외우는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날에는 A도시 중심에 있는 대형 황금 불교 사원을 방문하여 미얀마 가운데 있는 영적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VBS를 기다리며 선교센터 앞에서 아이들이 먼저 모여 있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이날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God Is Love)’라는 주제로 복음을 전했고, David 목사님이 복음을 선포한 후 함께 영접기도를 인도했습니다. 놀랍게도 많은 아이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깊이 역사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시간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는 시작이 되기를 함께 기도했습니다.

이후 미니 올림픽을 통해 아이들과 함께 뛰어 놀며 즐거운 교제의 시간을 가졌고, 이를 지켜보기 위해 이웃 주민들도 모여들었습니다. 사역을 마친 후에는 MOA 스태프들과 한국 전통놀이를 함께하며 교제하고 서로를 격려하는 귀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번 VBS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상보다 많은 아이들을 보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 주셨으며,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는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비록 당장 눈에 보이는 열매는 없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땅과 아이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앞으로도 M국 A도시의 아이들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MOA 사역자들을 위해 지속적인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2026 케냐 단기선교 소식

기도의 씨앗이 기쁨의 열매로

Kim Serene

Jambo!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동역자 여러분께 케냐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합니다.

약 30시간의 긴 비행 끝에 선교팀은 케냐 킬리피에 무사히 도착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반겨 준 것은 황광식·원지혜 선교사님 가정의 따뜻한 환영과 미역국이었고, 저녁에는 닭도리탕까지 먹으며 “케냐에 왔는데 식탁은 한국이네!” 하고 웃을 수 있었습니다. 미국팀 10명과 이스라엘팀, 케냐 선교사 가정이 하나 되어 총 21명의 한 팀을 이루었고, 도착하자마자 현지 교사들과 찬양·운동·스킷을 연습하며 다음 날의 사역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사역지는 선교사님들이 세우고 운영하는 킬리피 음코로쇼니 그레이스 스쿨이었습니다. 정확히 300명의 어린이가 참여한 3일간의 VBS를 통해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라는 복음의 진리를 전했습니다. 아이들은 자신이 사랑하는 하나님의 창조물을 그리고, 우산 부채와 복음 팔찌를 만들었으며, 프레첼과 과일·잼·바나나로 창조세계와 십자가를 표현했습니다. 성경 이야기와 찬양, 축구와 피구, 릴레이 게임이 이어질 때마다 교실과 운동장에는 아이들의 웃음과 함성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예보된 날에도 사역 시간에는 비가 멈추고 점심시간에만 다시 내리는 놀라운 응답을 경험했습니다.

둘째 날에는 많은 어린이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겠다는 뜻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순수하고 열린 마음으로 복음을 받아들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팀원들의 마음에 깊이 새겨 주었습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동안 참여하지 못했던 3~4세 어린이들을 위해 아침 일찍 미니 VBS도 열었습니다. 아이들이 건넨 손편지, 그리고 축복기도를 받으며 눈물을 흘리던 고학년 학생들의 모습 앞에서 선교팀도 함께 울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직접 만든 80개의 십자가 장식, 잘 붙지 않는 액자 공예를 붙잡고 모두가 달려든 모습, 이동 중 갑자기 터진 버스 타이어까지—은혜와 감동, 긴장과 웃음이 함께한 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역지인 칼레에서는 길가에 늘어선 아이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환영 노래를 불러 주었습니다. 예상 인원은 300~350명이었지만 실제로는 400명이 찾아왔습니다. 준비한 간식도 300명분뿐이었지만 놀랍게도 모두에게 충분했고, 함께 온 16세 여학생들과 현지 교사들이 자원하여 각 부스를 도왔습니다. 공예 통역을 맡은 삼손 목사님은 직접 모든 순서를 인도하고 팀원들과 신나는 댄스 대결까지 펼쳤으며, 이디 목사님과 글로리 선생님, 찰스 목사님도 간식과 게임 프로그램을 온전히 이끌었습니다. 처음에는 울동 찬양을 낯설게 바라보던 아이들이 마지막에는 모두 일어나 ‘Majestic’을 부르며 힘껏 춤추는 모습은 마음이 열리고 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이곳에 모인 400명의 어린이는 무려 36개 교회에서 왔고, 현지 목회자들은 앞으로 각 교회에서 직접 VBS를 이어 가겠다는 비전을 품게 되었습니다.

마지막 사역은 킬리피 중학교의 12~14세 학

생 약 100명과 함께한 청소년 캠프였습니다. “복음 안에서의 정체성”과 “비전”을 주제로 말씀과 간증, 스킷, 소그룹, 찬양과 게임을 진행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의 복음이 선포된 후 많은 학생이 앞으로 나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만 처음으로 자신의 믿음을 고백한 학생도 있었고, 한 무슬림 학생은 “복음을 들으며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다”며 영접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게임 직전 발목을 다친 이스라엘팀 자매가 잠시 후 통증 없이 회복되는 감사한 일도 있었습니다. 서로 다른 학년의 학생들은 소그룹에서 마음을 열고, 앞으로도 학교 안에서 그리스도 중심의 친구가 되기를 다짐했습니다.

마지막 예배와 기도로 이스라엘팀을 배웅하고 선교사님 가정과 작별한 후, 팀은 두바이를 거쳐 다시 미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 여정을 통해 팀원들은 어린이 사역의 부르심, 선교를 향한 마음, 예배의 소중함, 감사와 겸손, 하나님의 사랑과 순전한 기쁨을 새롭게 받았다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케냐에 무언가를 주러 갔다고 생각했지만, 돌아보니 하나님께서 어린이들을 통해 우리에게 더 많은 사랑과 기쁨을 부어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케냐의 어린이들이 복음 안에서 자라도록, 현지 목회자들이 각 교회에서 VBS를 이어 가도록, 황광식·원지혜 선교사님과 세 자녀 데이비드·조아·엠마가 이 지역과 케냐를 축복하는 통로로 굳게 서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선교팀이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각자의 삶에서 아름다운 열매로 맺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 캄보디아 김영대 / 조정아 선교사

1. 30호 교회 건축이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연동프레마일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모든 새소망교회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옵소서.
2. 캄장신 졸업식이 8일에 있었습니다. 신학과 신대원, 교회음악과, 유교과 66명의 졸업생들이 캄보디아 교계의 귀하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3. 캄장신에서 Bring-Up 세미나가 13일~24일까지 있습니다. 참여하는 모든 이들이 영적 지도자로 성장하게 하옵소서.
4. 올네이션학교 13일~17일까지 영어캠프가 있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실력과 믿음이 성장하게 하소서.
5. 캄보디아에 남반구독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질병으로 고통받는 모든 이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속히 회복되게 하옵소서.
6. 김영대, 조정아(성훈, 성빈)선교사 가정이 날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하나님 손에 붙들려 세계 선교에 쓰임받는 가정 되게 하소서.
7. 동역하는 모든 교회와 성도님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날마다 위로하시고, 축복하셔서 함께 세계선교 마무리 하게 하옵소서.

■ 캄보디아 김광석 / 이영미 선교사

스나오은혜 교회

1. 스나오 은혜 교회가 주님을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와 복음전파에 힘쓰는 교회로 세워지도록.
2. 교회 안에 신실한 일꾼들이 세워지도록. 속 사람이 변화하여 믿음 안에서 자라도록.
 - 교회 청년 리움과 찜으른은 요즘 직장문제로 교회에 자주 빠지고 있습니다. 환경이 변화되고 신앙이 성장할 수 있도록
 - 새로운 어른 성도들이 감사하게도 교회에 잘 나오고 있었는데 요즘 들어 자주 빠지게 되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 가족들이 교회에 잘 정착하고 더욱더 신실한 교회의 가족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3. 사역자와 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 사역자가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중에 일하는 일이 너무 많다고 합니다.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되도록. 설교 준비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믿음에 더욱 성숙하여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더 헌신할 수 있도록. 그 가정이 평안할 수 있도록. 물질로 시험받지 않도록.
4. 전도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5. 오르난의 타작 마당처럼 주님과 화목할 수 있는 처소를 주시도록.

선교사를 위하여

1.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건히 서도록. 몸도 건강할 수 있도록.
2. 성령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시대를 분별하고 강하고 담대히 주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3. 주의 말씀이 선포될 때 사람들의 마음을 열어 주시고 복음을 받아들이도록.
4. 필요한 생활비와 사역비가 넉넉히 채워지도록.
5. 세 자녀 드보라 다니엘 사론이 항상 진리 안에서 행하도록.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 보스니아 신운영 선교사

1. 공간 임대 (제니차 아니면 트라브닉에서)
2. 제니차에서 감옥사역을 위해
3. 언어습득을 위해

기도제목

선교지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미국 기OO 선교사

1. 새로운 학년을 맞이한 장학 학생들이 학교 생활의 모범이 되며 열심히 학업에 임할 수 있도록
2. 장학 학생들, 부모님들, 기숙사 학생들, 공동체 학생들의 믿음이 말씀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3. 교제하는 M 및 타종교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관계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도록
4. 사역에 알맞는 비자 타입을 찾고 비자 발급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5. 함께 동역할 수 있는 단체를 만날 수 있도록
6. 한국에 머무는 동안(7월 29일~) 영적 육적 재충전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일본 공영환 / 공은자 선교사

1. 세세교회에 전도열매를 주시고 후계자를 세워주소서!
2. 타케노지역에 결신자를 주소서
3. 타케노 무교회지역에 교회를 세우소서
4. 선교사와 가족의 건강과 성령충만

선교부 광고

1. 단기 선교 일정과 모집 안내

- 페루 아야쿠초 인카운터 1기 (8/16-8/23)
S/L: 이창석 목사
디렉터: 이재근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 몽골 TD 2기 (8/29-9/8)
S/L: 한기홍 목사
렉터: 스카이 박 집사
문의: 858-335-9415
- 중미 AFA 2기 (9/6-9/12)
S/L: 송중호 목사
렉터: 이항복 장로
문의: 한상영 집사 (213-713-2001)
O/T: 7/1(수), 웨딩채플, 7pm

- 캄보디아 인카운터 1기 (9/7-9/14)
S/L: 설성훈 목사
디렉터: 케빈김 집사
문의: 로이김 집사 (213-999-1737)
T/M: 7/30(목), 108호 7pm

- 인도개척선교 모집 (10/25-11/4)
문의: 전재우 집사 (562-644-2128)
O/T: 8/12(수), 7pm, 웨딩채플

2. 의료선교국 주일 상담

매주 주일 10:00 - 11:15AM
문의: 의료선교국

3. 이스라엘 회복과 부흥 및 주빌리 구국기도회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 장소: WPC
문의: 현민정 목사 (714-732-2636)

4. 선교부 디보션 일정

매월 2, 4째주 주일 9:00AM

5. 온라인 선교지 소식

WWW.YOUTUBE.COM/
@GMIMMISSION
WWW.FACEBOOK.COM/
GMIMMISSION

